

< 2023년 교회표어 >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 2:46-47)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 사도신경

- 찬 송 302장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2.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3.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 기 도

- 성경본문 마태복음 14장 24-27절

-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 삶 나누기

성경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 우리와 비슷한 사람, 베드로

오늘 성경 속 사건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게바)로 개명을 해 주셨습니다(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1:42).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 도전하기도 잘하지만, 실패도 반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견고한 반석이란 뜻의 이름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씀'(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27절)과 '주님께로 초청하는 말씀'('(내게로) 오라!'-29절)과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31절)이었습니다.

##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큰 물결로 말미암아 밤 사경까지(새벽 3~6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파도치는 바다 한 복판에 바다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 무서워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요? 호기심이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까요? 명백한 것은 그에게 모험적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배라고 하는 삶의 안전판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 위험한 물 위에 섭니다.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예수보다 뒷전에 놓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비겁한 자의 덕목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의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 인생의 모험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그리고 물위를 밟으사 ‘나다, 안심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창조주의 음성이었습시다. 신앙이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는 모험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물 위를 밟으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배를 떠났는데, 자기를 보니 바람이 일고 파도만이 보인 것입시다. 이런 베드로의 문제는 마치 우리 신앙의 모습과 흡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입시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시다.

하지만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배를 떠났을 때도, 이미 그 때도 파도가 산처럼 출렁이고 있었다는 점입시다. 그럼에도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배를 떠날 수 있었고,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였습시다. 그런데 이제는 풍파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 베드로는 침몰해 갑시다(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

## '의심'이 '믿음'보다 크면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무서울 때가 있고 그래서 모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바람 부는 풍량이 더 겁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수 믿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눅 9:62)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믿음보다 크면 '작은 믿음'이고, 믿음이 의심보다 크면 '큰 믿음'인 것입니다.**

## 결론

모험적 신앙이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풍량이 있는 세상을 헤쳐 나가는 신앙일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라'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 말씀 나눔

1. 설교에서, '작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나요?(4쪽 중간 밑줄)
2.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도전했던 '신앙의 모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혹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